은덕과 공평

무골호인

조선 시대 인물 가운데 너그러운 사람을 꼽으라면 아마 황희 정승을 떠 올릴 것 같다. 그와 관련하여 전해오는 일화는 무척 많다.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도 있다.

정승이 방안에서 손님과 얘기하고 있는데 바깥이 떠들썩했다. 여자 하인 둘이서 서로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면서 싸우고 있었다. 정승이 시끄러워서 무슨 일인가 하고 방문을 여니, 한 하인이 정승에게 큰 소리로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였다. 다 듣고 난 정승은 "네 말이 옳다."라고 하자, 듣고 있던 다른 하인도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며 상대를 비난하였다.
그것도 다 듣고 난 정승은 "네 말도 옳다."라고 하였다.
이 광경과 말을 다 보고 들은 방안의 손님이 "무슨 대답이 그렇습니까? 누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공평하게 판단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자, 정승은 "자네 말도 옳으이."라고 대답하였다.

평범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승이 그저 관대한 무골호인이라서 이렇게 대했다고 여기겠다. 모르긴 해도 정승의 이런 대답에는 깊은 속뜻이 있을 것이다. 사실 옳고 그름을 재판할 때는 아무리 공평하게 해도, 균형 잡힌 저울처럼 정확하게 되기는 어렵다.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재판에서 지는 쪽은 필연적으로 재판관을 원망하게 되어 있다. 과거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직업으로 판사를 선호한 때가 있었지만, 알고 보면 판사라는 직업은 어차피 어느 한쪽으로부터 원망과 욕을 먹게 되어 있다. 특히 정치에 관련된 재판일 경우 지지자들이 있으니 더욱 그러할 것이다. 그 욕이나 원망이 부당할지라도 재판한 판사의 마음이 편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형량이 가혹한 판결은 특별한 경우를 빼고 드물다. 이런 특징 때문에 미래에는 AI가 재판을 맡을 수도 있다.

황희 정승의 판단은 하인들의 이런 심리를 고려했을 것이다. 하인들의 싸움이란 어차피 오해나 과장 그리고 미움과 시샘 등의 주관적 심리와 관계되는 것이고, 공정하게 판단해도 진 쪽은 불평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차라리 둘 다 옳다고 함으로써 당사자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따라 금방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시키고자 했을 것이다.

하지만 만약 집안의 하녀들 문제가 아니라 옥사나 송사를 두고 재판을 할 입장이어서도 이랬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공평함이 우선인지 개인의 도량이 먼저인지 반드시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덕량을 넓힘에 있어서 포용적인 은덕恩德과 공평은 반드시 새의 양 날개처

럼 필요한 것이지만, 은덕만 발휘하면 무골호인이 그렇듯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밖에 없고, 공평성만 발휘하면 다수의 요구에 부합할지라도 일부 사람의 원망을 피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율곡 선생은 앞서 덕량을 높여 포용하라고 하면서도, 무턱대고 할 수 없으므로 일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여긴 것 같다. 그것이 공평이다.

친인척의 청탁 거절

필자가 어렸을 때만 해도 누가 높은 관직에 있거나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의 친인척은 청탁을 많이 했다. 청탁을 들어주면 친인척 사이에서 덕이 있다고 칭찬이 자자했다. 친인척은 물론이 사돈팔촌과 고향 사람이라도 그러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누구 '덕 좀 보자'는 거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자식을 잘 교육시켜 그런 사람으로 출세시키려고 하였다. 검사·판사와 고위 공직자를 만든 게 당시 학부모들의 큰 꿈이었다. 필자도 청소년 때 살던 고향에서 공부 좀 한다는 소문 때문에 친척은 물론 마을 사람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그런 기대와 전혀 상관없는 분야를 공부해서 실망이 컸을 것이다.

그런 기대는 세상이 바뀌고 나니 다 헛된 일이 되었다. 청탁은 공정과 공평에 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영

향력 있는 사람 가운데는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는 속담대로 청탁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재량권 안에서 영향을 끼치고 봐주고 한다. 더러는 들켜서 망신을 당하고, 더러는 세간의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경우도 있다. '부모 찬스'라는 말도 그런 배경에서 나왔다.

그러니 전근대 사회에서는 청탁하는 일이 비일비재 한 모양이다. 하지만 덕을 쌓아 그런 일을 멀리 했던 사람도 분명히 있었다. 율곡 선생이 덕량을 넓히라고 하면서 동시에 공평을 말한 것도 그런 이유이다. 선생의 당시에도 그런 인물이 있었다. 선생이 지은 『석담일기石潭日記』에 등장하는 이야기이다.

> 이후백李後白이 이조판서가 된 뒤로 공론을 숭상하고 청탁을 받지 않아서 정사政事가 볼 만하였다. 비록 친구라 하더라도 자주 찾아가면 마땅치 않게 여겼다. 하루는 친척 한 사람이 찾아와 환담하다가 말끝에 벼슬을 구하는 뜻을 보이니, 이후백은 얼굴빛을 고치며 사람들의 이름을 많이 기록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는데, 그 친척의 이름도 거기에 올라 있었다. 그 명단의 인물들은 곧 벼슬을 시킬 사람들이었다.
>
> 이후백이 말하기를, "내가 자네 이름을 기록하여 천거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자네가 관직을 청탁하다니! 청탁해서 얻는 관직은 공평한 도리가 아니네. 애석하네. 자네가 만약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벼슬을 얻을 수 있었네."라고 하자, 그 사람은 그만 부끄러워서 돌아가 버렸다.
>
> 이후백은 언제나 하나의 벼슬이라도 시키려면 꼭 그 사람됨이 마땅한지 안 한지를 두루 물어서 시행하였다. 어쩌다가 적당하지 않은 사람을 잘못 시켰다면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내가 나랏일을 그르쳤다."라고 할 정도였

다. 여론이 "이후백 같은 공정한 마음을 최근에는 비교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더니, 지금에 와서 병으로 사면하고 정대년鄭大年이 대신하였다.

이런 일을 두고 요즘 같으면 아마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다.

"잘 됐네. 그려. 그렇잖아도 자네의 자격이 충분하여 내가 이미 명단에 올려놨네."라고 하는 것은 그나마 공평할지 모르지만, 아예 합격 예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생색을 내거나, 심하게는 채용에 합격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이 경우 당사자나 그의 가족들은 누구의 덕을 봤다는 말을 하게 된다. 이 때의 '덕'은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을 뜻하지만 한자로는 '德'이다. 결국 베푼 사람의 덕량이 풍부한 것으로 여긴다. 만약 해당 인물이 친인척의 청탁을 거절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 쉽게 짐작하리라 본다.

"인정머리 없는 놈,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더니 지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앉았다고 그러나? 어디 두고 보자."

대 놓고 이런 말을 하지 않겠지만, 이런 말 정도는 들을 각오해야 한다. 이처럼 친인척에게 덕을 베풀기는 쉽지만, 공평성을 요구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래서 선생은 덕량을 넓힘에 있어서 사적인 인정을 베푸는 일을 덕량으로 오해할까봐 공평함을 강조하였다. 또 선생은 『서경』의 말을 인용하였다.

치우치지 않고 기울지 않게 왕의 의를 좇고, 사사로이 좋아하는 것을 드

러내지 말고 왕의 법도를 좇으며, 사사로이 싫어하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왕의 길을 좇으라. 치우침도 없고 파당派黨도 없으면 왕도王道가 탕탕蕩蕩해질 것이며, 파당도 없고 치우침도 없으면 왕도가 평평平平해질 것이며, 어긋남도 없고 바르지 않은 것도 없으면 왕도가 바르고 곧을 것이다.

원래 『서경』의 내용은 대개 고대 왕들의 역사이자 또 거기에는 후세 왕들에게 교훈이 되는 말이 많다. 그래서 선생이 선조에게 말하고자 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다. 선생 당시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는 당쟁의 조짐이 있었고, 또 시작되지 않았는가? 또 조선 후기 영조 때 이른바 당쟁을 없앤다는 취지로 탕평책蕩平策을 썼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내용이다. 노론의 지원을 받아 왕이 된 영조의 속마음이 실제로 어땠는지는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겠다는 의지가 들어간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선조에게 덕을 넓혀야 하지만, 어디까지나 공평해야 한다는 의도로 올린 말이다.

이 공평함에 대해서 정이는 "마음이 공평하면 그 마음이 하나가 되지만, 마음이 사사로우면 그 마음이 만 가지로 달라진다."라고 말하였다. 사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청탁하는 사람마다 신경 써야 하니 마음이 복잡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덕을 쌓은 군자가 공평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는 어렵다. 소인들은 군자가 공평하면 인정과 덕이 없다고 하고, 반면 공평함을 굽혀 자신들에게 잘 대해주면 덕이 많은 사람이라 할 것이다. 모든 행위와 가치관이 군자와 소인은 다르기 때문에 소인의 입장에서 군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고, 그

런 의미에서 군자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힘들다.

사실 공적인 일과 무관한 지위가 없는 자연인으로서는 이런 공평이 문제될 일은 거의 없다. 반면 나라의 지도자나 조직을 이끄는 사람에게는 덕량을 높이는 것 못지않게 공정성을 발휘해야 한다. 선생이 선조 임금에게 이 글을 올린 까닭도 거기에 있었다.

나의 도량은?

여러분은 화를 자주 내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내었는가? 필자도 젊었을 때 미숙하여 아내에게 화를 자주 냈던 기억이 있다. 요즘 같으면 아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경고하겠지만, 당시는 문화가 그래서인지 아내가 잘도 참아 주었다. 물론 나보다 심한 사람 가운데는 그런 성격을 버리지 못해 황혼 이혼을 당한 분들도 더러 본다. 다행히 나는 중도에 태도가 많이 변하여 거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전통철학을 공부하면서 성현들의 훌륭한 말씀을 자주 읽다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 태도가 바뀐 건지, 아니면 나이 탓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그 일로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산다.

선생은 도량이 넓지 못한 원인을 기질이 병든 데서 나온다고 한다. 그것을 성리학적으로 말하면 타고난 본성을 덮고 가리는 병폐인데, 그것은 몸과 관련되어 있다. 앞서 설명했듯이 기질은 성격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정신적·생리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선생의 말에 때로

는 성격의 의미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기질의 병폐에는 유전적 요인과 잘못된 환경의 영향으로 형성된 성격의 미숙함도 포함되어 있다.

도량을 작게 만드는 병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인품이 치우치고 왜곡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생각이 막혀 있고 두루 통하지 못하여, 공평한 마음으로 이치를 살피지 못한다고 한다.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은 무지와 관련이 된다. 견문을 넓히고 독서를 통해 사물의 이치와 지혜를 쌓아야 할 것 같다. 둘째는 스스로 잘난 체 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조금 얻은 것에도 만족하여 겸손한 생각으로 덕에 나아가지 못한다고 한다. 조금 성공한 것 가지고 우쭐 대거나 자랑하는 사람이 그런 경우이다. 그러다가 왕창 망한 자도 있다. 그럴수록 겸손하고 덕을 쌓는 게 크게 이루는 방법이다. 세 번째 병폐는 이기기를 좋아하는 것이다. 그런 자는 잘못을 꾸미는 일을 편안하게 여겨서 자기를 비우고 선을 따르지 못한고 한다. 그는 남의 성공에 질투하며 흠을 찾지만, 때로는 자기 마음도 괴롭다.

이와 유사한 진단에는 담헌 홍대용의 말에서도 보인다. 곧 천하를 거짓되게 만드는 마음에는 '자랑하는 마음, 남을 이기려는 마음, 권세를 부리려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이라고 꼬집었는데, 선생의 이 분석과 공통점이 있다.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유사성이 많다.

아무튼 선생은 이 세 가지를 요약하여 단지 하나의 사사로운 것뿐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사로운 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학문뿐이어서, 학문이 진보하면 도량도 커지므로 타고난 바탕의 좋고 나쁨은 논할 바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서양식 학문만이 아님에 유의해야 할 것 같

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필자나 여러분들도 희망이 있다.

여기서 '사사로운 것'은 오늘날 사적인 것을 의미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성학집요』가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적인 것을 금기로 여겼던 것이다. 왕조 시대는 모든 게 왕의 것이므로 굳이 사익을 말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사적인 모습을 보이면 욕심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 덕이 되지 못한다.

그 점은 오늘날 지도자들에게도 필요한 일이다. 특히 국가나 큰 기업을 책임진 사람이 자신의 몫에 집착한다면 나라나 기업이 제대로 굴러갔겠는가? 사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라고 법이나 규칙으로 그만큼 예우하지 않는가? 하지만 보통 사람은 정당한 사익을 챙겨야 한다. 그래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조직 생활에서 지나치게 사적인 일을 강조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에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는 있다.

아무튼 왕이나 지도자가 덕량을 넓힘에 있어서 사적인 것은 금물이 될 뿐이다. 다만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덕량을 적게 만드는 병폐를 경계해야 할 것 같다. 독서를 통해 식견을 넓히되 본인이 게으른지, 잘난 체 하는지, 이기기 좋아하는지, 홍대용의 말처럼 권세를 부리는 '갑질'은 없는지 조심하고 경계해야 덕을 넓힐 수 있다. 누가 말하기를 사람을 망치는 욕망에는 물욕과 색욕과 권세욕 등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이름'이 알려지는 욕망이라고 한다. 만고에 통하는 진리이다. 요즘 조그만 재주라도 알려지면 잘 난 척 이름을 알리려는 사람

들이 좀 많은가? 대중의 인기를 끌면 돈과 연결되기 때문인데, 곡학아세하지 않고 덕량을 넓히려는 사람은 특히 이 점을 경계해야 할 일이다.

이제 세상의 일에는 모든 게 다 좋거나 모든 게 다 나쁜 게 없는 게 통용되는 상식이지만,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듯이 여기에도 그것이 있다. 바로 덕량을 넓히는 것이 그것이다. 자신에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남도 좋고 하늘과 땅에게도 좋다. 모두가 좋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덕량은 어느 정도인가? 약자에게 너그러운가? 화를 잘 내는가? 작은 이익과 성공에 만족하여 큰 것을 보지 못하는가? 아직도 작은 성취에 우쭐대고 있는가? 혹시 후배들이나 친구들 앞에 학력이나 돈이나 자식이나 여행이나 건강 자랑 따위를 하지 않는가? 아직도 남에게 뭐든지 지지 않으려고 노력 중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란다.